

<일반논문>

구조와 행위주체: 남부노예제사회와 역사가들(1)

양 홍 석*

<목차>

- I. 서론
- II. 노예공동체사회와 도덕경제학
- III.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미국 남부 노예제 사회에서 “구조”와 “행위주체”에 대한 역사가들의 논쟁에 대한 대안적 시론 정도의 글이다. 노예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생존의 지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음식을 선정하여 이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 역사가들의 논쟁과 그 해답을 우선 이해하고 필자의 조심스러운 대안을 시도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음식을 두고 주인과 노예들의 상호관계상의 역할과 반응 그리고 각각이 기대하는 요구의 분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구조와 행위주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노예제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상품수익에 전 에너지를 투입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결정적으로 식량의 부족은 만연하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이 부족한 식량의 배분을 절묘하게 조정하여 결국 주인님은 자신이 원하는 구조를 짜고, 감시와 통제의 방법으로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음식을 두고 일어나는 노예들의 투쟁이 있고 그것을 행위주체의 위대한 투쟁의 한 부분으로 높이 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주인님이 의도적으로 짜놓은 구조의 틀에서 작위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인님을 비롯한 상부 계층의 통제와 감시의 전방화, 내밀화가 행동주체의 자발성을 상대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특징 부분에서는 노예들의 노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동체운동이나 또는 노예들의 저항과 운동의 특징들도 주인님이 만들어놓은 구조의 틀과 의도와 방향에서 결정되게 된 점을 확인하게 될 때, 이 사회 상부에서의 기획이 생산을 담당하는 행동주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보다 치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미국노예제, 구조, 행위주체, 노예공동체, 도덕경제학

I. 서론

노예제도 하에서 모든 것은 부족하다. 특히나 노예들이 일상생활에서 부족함으로 겪는 고통은 그들이 남긴 기억과 회고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자연적, 환경적인 조건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주인님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서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추측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는 통제와 감시의 한 부분으로 주인님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적 상품 작물 생산에 몰두하고 있는 과정에

서 자연과 생태학을 변경하게 됨으로써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감시와 처벌에서도 고려되면서 자연을 조정하고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연속과 강요에서도 노예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와 구호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럼으로 이로 인해서 놀라운 협력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유지 존속하고 있다는 주장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다면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놀라운 흑인 노예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강조하는 역사가들은 결국 이런 방면에서의 공부가 노예 공동체의 모든 행동과 의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들의 인간적인 고민에서부터 그들의 저항과 자발적인 의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노예제도라는 특수한 사회 구조(structure)에서 행위주체(agency)인 흑인노예들의 기능과 활동을 확인하는 수확을 거두어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¹⁾

1) 사회학에서 시작하여 역사학에서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회의 두 가지 결정요인은 구조와 행위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요소 중에서 구조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회의 사회적 생활과 결과는 행위주체로서의 개인의 의지와 결정권보다는 사회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사회구조보다는 행위주체로서의 개인의 능력과 의지를 강조하고 이것에서 사회적 생활과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주장도 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Margaret S. Archer, *Structure, Agency and the Internal Conversa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Chris Barker, *Cultural Studies: Theory and Practice* (London: Sage, 2005). 미국 노예제도라는 특수한 구조에서 행위주체로의 노예들의 자유의지와 저항에 대한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 Walter Johnson, *Soul by Soul: Life Inside the Antebellum Slave Marke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Jonathan D. Martin, *Divided Mastery: Slave Hiring in the American Sout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Walter Johnson, "On Agency," *Journal of Social History* 37:1 (Fall 2003), pp. 113-124; Sally Hadden, *Slave Patrols: Law and Violence in Virginia and the Carolina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Stephanie Camp, *Closer to Freedom: Enslaved Women and*

노예들의 상호부조와 협조는 예상외로 아주 강력하고 그럼으로 해서 남부 노예 제도에서 이 부분에서의 정확한 이해가 바로 일상사의 한 중요한 관점으로 다가오게 됨에 따라서 역사가들은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만 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으로 지금까지 이런 부부에서 놀라운 협력과 공동체의 작업에 인상 깊은 역사가들은 “노예공동체사회”(slave community)라고 명명할 정도에 이르게 된다. 그런 유형/무형의 협력과 공동 부조의 모습을 물질적인 조건에서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²⁾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군의 역사가자들은 노예제도 하에서 이러한 자발적인 공동체의 노력 이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결국 주인님을 중심으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삶의 모두를 통제하고 검열하는 그런 시스템 더 구체적으로 이른바 “구조”라고 하는 측면을 더 강조

Everyday Resistance in the Plantation South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4); Anthony Kaye, *Joining Places: Slave Neighborhoods in the Old South*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Eugene D. Genovese, *Roll, Jordan, Roll: The World the Slaves Made* (New York: Vintage, 1976).

- 2) John W. Blassingame, *The Slave Community: Plantation Life in the Antebellum South* (1972; rev.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Dylan C. Penningroth, *The Claims of Kinfolk: African American Property and Community in the Nineteenth-Century South*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3); Al-Tony Gilmore, *Introduction to Revisiting Blassingame's The Slave Community: The Scholars Respond*, ed. Al-Tony Gilmore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78), pp.x-xi; Kenneth M. Stampp, *The Peculiar Institution: Slavery in the Ante-Bellum South* (1956; New York: Vintage Books, 1989), p. 322; Stanley M. Elkins, *Slavery: A Problem in American Institutional and Intellectual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chap. 3; George P. Rawick, *From Sunup to Sundown: The Making of the Black Community*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72), p.xiv.

하고 그 속에서의 보면 공동체적인 운동은 결국 구조에 비하며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볼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³⁾

문제는 공동체의 존재와 그 의의를 확인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그런 측면에서의 요인은 결코 구조의 강력함에 비해 결코 큰 의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도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는 점이라는 것에 이들 역사가들의 논의가 그렇게 쉽게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해답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글이 갈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글은 주로 미국의 남북전쟁 이전의 노예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예들의 자체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협력적 문화의 특징과 그 의의를 알아보고, 다른 한편으로 그런 차원에서의 강조가 너무나 과한 나머지 구조의 그 억압 강도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해석에 대한 염려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깊게 논의하기 전에 여기서 미리 변명을 서두려면, 이런 구조와 행위주체의 힘의 강약을 공부하는 것이 노예제 사회에

3) Walter Johnson, "On Agency," *Journal of Social History* 37:1 (Fall 2003), pp. 113-124; *River of Dark Dreams: Slavery and Empire in the Cotton Kingdom* (Cambridge, the Belknap Press, 2013), pp. 176-243; Eugene D. Genovese, *Roll, Jordan, Roll: The World the Slaves Made* (New York: Vintage, 1976); Stephanie M. H. Camp, *Closer to Freedom: Enslaved Women and Everyday Resistance in the Plantation South*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4); Anthony E. Kaye, *Joining Places: Slave Neighborhoods in the Old South*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9); Walter Johnson, "Agency: A Ghost Story," in Richard Follett, Eric Foner, and Walter Johnson, *Slavery's Ghost: The Problem of Freedom in the Age of Emancip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1).

서 그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 저항 등과 같은 공동체 부분에 대한 발 굴과 그 의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 들 필요가 있다.

구조와 행위주체와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 부 분에서 있었던 다양한 역사가들의 논의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측 면에서 “노예공동체사회”와 이른바 “도덕경제학”이라는 테제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연구 성과를 분석 비판을 시도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필자 는 노예들은 그들의 노력과 적극적인 저항운동에서도 결국 주인님의 의도 와 기획된 구조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더 강력 하고 무서운 이 사회의 통제 시스템의 힘을 이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⁴⁾

이와 같은 노력은 최근의 이 분야의 역사학의 진로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역사에서는 구조를 행위주체의 상위 개념으로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행위주체의 자발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

4) 도덕경제학은 시장의 원리인 수요와 공급보다는 정의로운 가격, 임금 등을 중요시 하는 가치 기반 사회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역사가 E. P. 톰슨이 영국사 에 서 사용한 개념을 빌려서 미국 남부 사회에 적용한 것이다. E. P. Thompson, “The Moral Economy of the English Crowd in the Eighteenth Century,” *Past & Present* 50 (1971); “The Moral Economy Reviewed,” in *Customs in Common* (New York: New Press, 1993). 특별히 미국 남부 노예제도와 도덕경 제학에 대해서는 다음 사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Peter Bruner, *A Slave’s Adventures toward Freedom: Not Fiction but the True Story of a Struggle* (Oxford, Ohio, n.d.), p. 12; John Brown, *Slave Life in Georgia: A Narrative of the Life, Sufferings, and Escape of John Brown, a Fugitive Slave*, ed. F. N. Boney (Savannah: Library of Georgia, 1991), p. 13, 20; Kate E. R. Pickard, *The Kidnapped and the Ransomed: Being a Personal Recollection of Peter Still and His Wife “Vina” after Forty Years of Slavery* (Syracuse: Wm. T. Hamilton, 1856), p. 199; Charles Ball, *Fifty Years in Chains: or, The Life of an American Slave* (1859; Detroit: Negro University Press, 1969); Frederick Law Olmsted, *The Cotton Kingdom*, ed. Arthur M. Schlesinger (New York: Random House, 1984; orig. pub. 1860), p. 262.

시하고 있다. 물론 구조와 행위주체와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고, 힘의 강약과 그 구조의 기간이 시작, 중간 그리고 말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와 상호관계에 있는 행위주체의 반응과 자발성도 동일한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어서, 환원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감히 거부할 것이다.⁵⁾

그럼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 왜 이 사회가 그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독특한 체제를 존속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대한 의문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구조를 강조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무쇠우리적인 성격을 강조한다고 해서 행위주체의 노력이 희미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구조가 강조되고 그런 속에서 강력한 기능을 이해하고 그런 속에서 주인님의 의도와 총제적인 감시

5) Phillip D. Morgan and Ira Berlin, eds., *Cultivation and Culture: Labor and the Shaping of Slave Life in the Americas*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93); Phillip D. Morgan, *Slave Counterpoint: Black Culture in Eighteenth-Century Chesapeake and Low Country*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8); David Eltis, *The Rise of African Slavery in the America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John Womack, "Doing Labor History: Feelings, Work, Material Power," *Journal of the Historical Society* 5 (September 2005), 255-296. 저항의 한계와 인간은 결국 구조 속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주인님들이 짜놓은 물질적인 관계 속에서 행동 주체는 종속변수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구조와 물질적인 관계 속에서 좌지우지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결론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Stephanie M. H. Camp, *Closer to Freedom: Enslaved Women and Everyday Resistance in the Plantation South*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4); Anthony E. Kaye, *Joining Places: Slave Neighborhoods in the Old South*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9); Brown, *The Reaper's Garden*; Walter Johnson, "Agency: A Ghost Story," in Richard Follett, Eric Foner, and Walter Johnson, *Slavery's Ghost: The Problem of Freedom in the Age of Emancip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1).

와 처벌을 이해하게 됨은 결국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위주체의 의지가 왜 그런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II. 노예공동체사회와 도덕경제학

노예 출신의 찰스 볼의 기억은 돌이켜보자. 그는 자신과 같이 일을 하고 있던 노예들은 서로간의 유대를 확인하고 결집력을 다지고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매개 요인은 음식을 통해서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논밭에서 하루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돌아오면 지친 몸으로 어둠 속에서 옥수수를 갈아 허기를 채워야 했다. 그런데 바로 그 과정에서 놀라운 분화가 일어난다. 이른바 “욕구의 위계”(a hierarchy of need: 다양한 욕구들 상호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위계화한 것)라는 것이 작동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여를 찾게 된다. “세 명의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누구보다도 먼저 옥수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녀가 그 일을 마치고 나면, 다음에는 늙은 노인이 그리고 나머지 노예들이 차례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암묵적이고 자연스럽게 순번이 정리가 되어 있었다.”⁶⁾

찰스 볼은 이후에 오면 노예상인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팔려가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한 부부와 그들의 어린 자녀와 같이 오두막을 쓰게 되었다. 그는 특별한 밤의 기억들을 전해주고 있다.

6) Charles Ball, *Fifty Years in Chains: or, The Life of an American Slave* (1859; Detroit: Negro University Press, 1969), 특히 pp. 55, 117, 118 참조.

“디나(Dinah)는 함께 거주하는 오두막 속 가족의 우두머리였다. 그녀는 검은 단지에서 수프를 끓였다. 그 내용물로는 당밀이 사용되었다. 음식이 준비되자 나에게 수프를 주었다. 나는 이와 같은 친절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음식은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귀한 것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웬만한 씹씹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방인을 위해서 감수한 것이다. 결국 그들 가족은 새로운 출입자 때문으로 그날 음식이 당밀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없을 정도로 묽고 얽은 죽으로 때울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러한 호의에 보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 가득이 들었다. 그래서는 그녀의 남편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였다. 그의 이름은 네로(Nero)였다. 내가 이 오두막에서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네로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돕겠다는 것을 말이다.”⁷⁾

그런데 노예출신 제이콥 스트로어는 이러한 협동이라는 것이 두 개의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억의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 즉 작은 부분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적 협력과 그 긍정적인 결과가 하나라면, 그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노예들이 주로 거주하는 오두막에 오랫동안 적응을 해온 사람은 자신의 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상한 그리고 결코 화합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쉽게 읽어낼 수 있다. 이유인즉 그곳에서는 단지 화로의 불꽃 세기 하나를 놓고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곳에서 노예 상호 간의 적대감과 공포감은 집안의 공기에서 먼저 그리고 쉽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⁸⁾

7) Ibid.

8) Jacob Stroyer, *Sketches of My Life in the South, Part I* (Salem, MA: Salem Press, 1879), p. 32.

많은 노예들은 농장 주위에서 스스로가 사냥을 통해서 준비한 것들, 또는 여러 군데에 설치하여 놓은 덫에서 얻은 성과를 가지고 자신들의 부족한 배급량을 채우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부족이 일상적인 곳이다. 다시 볼의 경우를 들어보자. 볼은 디나와 네로라는 이름을 가진 부부와 같은 오두막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그들 부부가 거의 자신의 거주지에 침투한 이방인에 다름없는 그에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선뜻 내주고 자신들은 빈약한 한 끼를 때우는 것을 보고 감사를 표하기로 다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것은 바로 농장 주위에서 사냥을 하여 이들 가족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다.⁹⁾

그러므로 이 가족은 다른 이들에 비해서 식량이 곤궁한 시기에도 그들만의 예외적인 향유를 즐길 수 있었다. “가을과 겨울동안 우리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우리 오두막에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 화로위에 고기를 굽고 있을 때나, 고기가 식탁위에 올라 갈 경우에는 우리 오두막은 같이 사용하는 노예들의 아이들로 가득하였다. 아예 어떤 아이들은 고기 한 점을 달라고 애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그 귀한 고기를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는 사람(the contents of our board)이 거의 30-40명에 이르는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¹⁰⁾

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예공동체”라고 불리는 것은 여러 가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기본 단위로 한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 되어 왔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 공동체는 핵가족을 기반으로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9) Ball, *Fifty Years in Chains*, p. 171.

10) Ibid.

는 생활 거주지와 상품과 음식의 배분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한 단위가 이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럼으로 이런 성격이라면 사실 노예들의 사회는 또는 공동체의 범위는 거의 “혼성”적인 또는 “복합”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단위를 하나의 개념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을 자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¹¹⁾

볼이 기억하는 “노예공동체”는 한편으로 보면 인간을 재산으로 이해하는 예외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 그 외는 다른 사회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이 공간에서도 서로간의 인격을 전혀 인정치 않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이들의 생활 공동체가 다른 사회와 같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종잡을 수 없는 측면이 기기묘묘하게 섞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재산으로서의 노예의 존재와,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가족으로서의 의미가 들어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¹²⁾

노예 볼과 스트로어가 전해주는 경험담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노예들은 어쨌거나 재산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그 속에서 비극적인 삶은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부분에서는 그들은 보통의 우리 사회와 같이 가족으로서 아니 가족의 한 구성원이라는 단위에서 삶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예외적인 경험들이 어떤 경우에는 서로 교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하나로 완전히 섞여지는 순간도 나타나고 있고, 두 가지가 서로 간에 뒤흔을 놓는 경우도 있다.¹³⁾

어느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볼은 자신을

11) Ibid.

12) Ibid.

13) Stroyer, *Sketches of My Life in the South*, 32; Ball, *Fifty Years in Chains*, p. 171.

하나의 가족같이 배려해준 그들을 위해서는 거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농장 주위에서 사냥을 하고 그것을 이 가족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고기는 주인님의 경제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주인님이 묵인 내지는 허락하신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노예 불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한 자원이기도 한 것이다.¹⁴⁾

또한 음식 즉 여기서는 고기라는 중요한 매개를 통해서 사회적 유대와 관계망의 결정적인 고리가 이루어지고, 이 고기를 통해서 효과적인 사회 관계가 이들 노예제 공동체 속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노예제 사회에서 특히 “노예공동체”에서라고 불리는 그 실체는 바로 물질적인 공간과 배분 그리고 공유성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공간과 배경에서 일어나는 협조와 공유 그리고 공동체내의 여러 기능은 주인님이 강제하고 주인님이 설정된 그런 생산관계와 생산양식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인님이 설정한 구조에서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그런 이분법적인 해답을 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의심의 시선을 결코 저버릴 수는 없다는 역사학문의 특징에서 보면-조금 위험한 판단의 경우인지는 모르지만-조금은 남다른 노예공동체의 성격을 가려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노예 공동체의 협동, 공제적인 성격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¹⁵⁾

불이 본 것이 우리가 보는 그 당시의 주인님도 어쩔 수 없는 권력과 구

14) Ball, *Fifty Years in Chains*, p. 171.

15) Ibid.

조 밖에서 존재하는 숨은 공간으로 노예 공동체의 놀라운 한 보기인가 아닌가, 아니면 이것을 전혀 다른 측면으로 이해를 구해 봐야 하는 것인가 하는 바로 점인 것이다. 예를 들면 주인님의 물질적인 차원에서 통제와 규율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인가 말이다. 또는 주인님의 설정된 좌표 안에서 주인님이 예상한 저항 안에서 움직이는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말이다. 이런 의문으로 계속되다 보면 단순히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환원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연속적인 수수께끼로 빠져들고 그 해답에 대한 갈증과 궁금증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더 깊게 다루겠다는 변명으로 숨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결국 볼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노예공동체” 사회의 역할과 그리고 그 한계가 어디에서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보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 경계는 바로 음식을 나누는 거리와 경계에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노예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주로 노예 집단에서 보이는 직접적인 협조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다면, 조금 우회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노예공동체 사회에서의 특징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역사가의 이론이 있다. 바로 구조에 대한 행위주체의 저항과 그 저항의 논리들을 그들 자신의 입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이른바 도덕경제학(moral economy)라고 부르는 이론을 적용해서 알아보는 방식이다.¹⁷⁾

16) Ibid.

17) 노예제 사회에서도 당연히 요구되는 식량을 비롯한 제반 필수품에 대해서 주인님에게 마땅히 요구하는 자료들은 노예 출신의 다음 증언과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Bruner, *A Slave's Adventures*, p. 12; Bibb, “Narrative of the Life”, p. 119; Brown, *Slave Life in Georgia*, p. 13, p. 20; Pickard, *The Kidnapped and the Ransomed*, 199. 노예는 아니지만 그 당시의 중요한 관찰자로서 주인님이 당연히 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되새기고 있는 인물은 Olmsted,

이런 접근 방식을 적용해서 해석을 시도한다면 재미있는 탐구학습으로 이 주제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결국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고기를 나누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한 경계로 해서 노예 공동체의 역할과 한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인님의 단일 작물 경제 결정론이 이와 같은 흑인들의 공동체의 관습과 문화에서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들의 음식을 통한 배분에서는 배급량에서 절대 부족함을 낳았고 그런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주인님들이 유형, 무형으로 흑인 사회의 공동체를 허용하였고, 음식을 통한 그들 공동체의 은연중에 이루어지는 상호 구호와 공제 방식을 묵인하였다는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예들의 공동체사회라는 것도 주인님이 짜놓은 내밀화된 감시와 처벌 구조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노예들은 주인을 무엇으로 평가하게 될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식량과 관계해서 평가를 한다. 노예 출신 피터 브루너의 기억은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즉 노예들의 “도덕경제학”이라는 명제로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한 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들 노예들은-또는 이 구조에서 행위주체들은-당연히 주어져야 할 음식의 배급을 가지고 주인님에 대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백인(주인님) 중에서 아주 소수의 경우에서만이 노예들을 배려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고, 특별히 몇몇 주인님들만이 노예들이 먹이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주인님이라면 음식 배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불만의 표현한다.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자신이 저항의 행동으로 돌진하게 된다.¹⁸⁾

존 브라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식량 문제를 가지고 그는 회고록의 많은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인과 노예 그리고 이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결국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농장 주인 벤 타버(Ben Tarver)라는 주인님은 달라도 매우 다르다고 언급한다. 적어도 그의 주장을 “도덕경제학”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을 보자¹⁹⁾

“나는 그가 오전이 다 지나도록 자신의 노예들에게 그 어떤 먹을거리를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점심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저녁 아홉 시가 되어야 그들은 입에 먹을 것을 가져갈 수 있었다. 그리고는 그 시간에 오면 옥수수가 주어졌다. 이것을 가지고 노예들은 케이크를 해서 먹었다. 나는 노예들이 고기를 먹는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었다. ... 그는 이 동네에서 주인님으로서 가장 평판이 안 좋은 사람으로 유명하다.”²⁰⁾

이와 같은 기억들을 도덕경제학과 연관하면서, 당시 이 지역의 생태학적인 면과 연관해서도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이른바 “도덕생태학”(moral ecology)이다. 노예 출신 헨리 빙은 다음과 같이 그 당시를 회상한다. “만일 (주인님들이) 노예들을 단지 재산으로 만 간주하고 있다면, 주인님으로부터 흠친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인 즉슨 흠친 재산은 결국 주인님의 소유물 안에 있는 것이고 결코 주인님의 영역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모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주인의 물건이 그것을 소비하고 그럼으로 그의 재산으로 변함없이 남아 있는 것이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주인님의 물건 즉 음식을 소

18) Bruner, *A Slave's Adventures toward Freedom*, p. 12.

19) Brown, *Slave Life in Georgia*, p. 13, p. 20.

20) Ibid.

비함으로써 다시 주인님의 생산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자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²¹⁾

노예 법이 보여주는 명쾌한 논리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의 회고담에서는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저항이라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인가를 알아보고, 구조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구조에 저항하는 행위주체의 구체성과 그 강도, 그 의의까지를 유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²²⁾

그러므로 노예 출신 앤드류 잭슨이 “아마 그것(도적질)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지 모를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매우 종종 굶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을 되새기는 것은 구조가 그들의 행위주체의 자발성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21) Bibb, “Narrative of the Life” p. 166. “도적생태학”이란 정의는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논제이다. 그러므로 그 개념의 범위를 무한정하게 연결하여 해석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히 최근의 환경과 생태학에 대한 관심에서 이런 지향성은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다음 연구서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기왕의 연구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Mart Stewart, *“What Nature Suffers to Groe”: Life, Labour, and Landscape on the Georgia Coast, 1680-1920*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96); Lewis C. Gray, *History of Agriculture in the Southern United States to 1860*, 2 vol, (Washington, D.C.: Carnegie Institution, 1933); Lynn Nelson, *Pharsalia: An Environmental Biography of a Southern Plantation, 1780-1880*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2007); Robert B. Outland, *Tapping the Pines: The Naval Stores Industry in the American South*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2004); Anthony Kaye, *Joining Places: Slave Neighborhoods in the Old South*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22) Genovese, *Roll, Jordan, Roll*, p. 608-609; Johnson, “On Agency,” pp. 113-124.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많은 부분 그들의 행동이 적극적인 저항으로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주인님이 짜놓은 구조화된 기아에서 일어나는 그러므로 주인님이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그런 단순한 반응인가라는 두 가지 선택이라면 후자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³⁾ 면화 왕국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이고,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굶주림이 될 것이다. 이곳 면화 왕국의 세상에서는 음식에 대한 아주 분명한 계급적인 분화 질서가 있었다. 그것은 주인님은 이 사회를 구조와 질서를 만들 때부터 작성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사회의 하층에 해당하는 노예들이 굶는 것은 거의 다반사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노예들은 굶주림과 수척한 모습으로 그들 서로를 보고 바로 이런 모습에서 그들 주인님에 대한 존경과 복종의 학습을 하게 되도록 자신들의 이웃들의 얼굴을 읽고 있었다. 음식이 바로 질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 것이다. 그리고 그 틀에서 주인님은 충분히 예상하면서 이 사회의 행위주체들의 저항도 계산이 있는 것이다. 어디까지 허용된 수순이다. 모든 것이 주인님의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상된 행동일 뿐이다.

노예들의 저항과 자유의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런 행위주체의 불굴의 노력이 사실 주인님의 구조를 운영하는 적정한 완충제 그리고 타협제로 허용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무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행위주체의 저항과 관계된 이 회색빛 구조의 내밀화된 연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저항의 본질과 그 역사적인 의의를 강조하는 것보다 더 발본적인 질문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들의 저항, 그들의 집단행동, 그들 스스로의 가치 지향적인 요구와 의지의 표현, 이 모든 것은 결국 이 구조의 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23) Andrew Jackson, *Narrative and Writings of Andrew Jackson of Kentucky* (Syracuse: Daily and Western Star Office, 1847), p. 28.

이고 주인님이 짜놓은 음식의 통제와 구속에서 묵인된 반발일 뿐이다.

사실 빙이 자기를 변호하는 방식은 매우 놀라운 것이지만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바로 표현들이고 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흠친” 음식은 “흠친 것이 아니라” 단지 “위치 이동”(took)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회의 구조를 읽어내는 빙의 위대성을 볼 수 있는 측면으로 독해해야 할 것이다. 바로 그가 왜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음식물을 흠치는 것이 결코 도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국에서는 주인님의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른바 후대의 역사가들이 도덕생태학이나 도덕경제학이라 하는 말로 빙 대서 이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여를 한 면이 바로 그의 언술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볼 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빙과 같은 노예들의 통찰력은 위대한 역사가들의 분석력과 비견되는 것이다.²⁴⁾

빙의 주장은 이런 의미에서만 의미심장한 것만은 아니다. 그는 이러한 음식물의 “위치이동”을 통해서 다시 주인님에게 할 수 있는 그들의 역할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 음식으로 정확하게 의미하면 “위치이동”을 한 음식으로 해서 기력을 회복하고 근로를 할 수 있는 힘이 재생되어서 주인님에게 봉사 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논리를 새우는 것이다. 다시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말이다.²⁵⁾

그러나 이 장면은 다시 보면 결국 이 사회의 또는 구조의 한 요인이었던 저항의 발생은 억압과 탄압이라는 보다 직접적인 결과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으로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노예들은 주인님이 짜놓은 “구조” 속의 한 “행위주체”라고 부를 수

24) Bibb, “Narrative of the Life”, p. 166; Genovese, *Roll, Jordan, Roll*, p. 597-598; Johnson, “On Agency,” pp. 113-124.

25) Bibb, “Narrative of the Life”, p. 166

있는 작동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주인님의 지배와 통제 속에서 더 철저하게 구조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²⁶⁾

노예제도라는 것은 그 자체로 철저하게 완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든 아니든 결국 노예들은 이후의 학자들이 “도덕경제”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그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자기주장과 저항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은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아마 노예들은 주인님의 잘 짜여지지 않는 제도 속에서 그런 모험과 의지의 유영을 즐길 수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면 그런 것 자체가 바로 주인님의 지배의 텃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구조는 단지 내밀화되어 허술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저러나 행위주체의 이런 점에서의 한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노예들의 직접적인 저항과 그 의지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달라도 아주 다른 것이다. 구조의 강도가 어떻게 되었던 다양한 감시와 처벌 안에서 이들이 보인 자유에 대한 저항과 도주의 그 긴 그리고 엄청난 이야기들은 하룻밤의 이야깃거리로 끝낼 이야기가 아닐뿐더러, 단순하게 구조의 강약과 그리고 그 속의 행위 주체의 상호 협조와 저항이라는 두 측면으로 논증을 끌고 갈 그런 이야기가 아닐지 모른다. 간단하게 말해서 문제를 너무 환원적인 또는 이분법적 측면에서 몰두에서 벗어나야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것과 다른 차원에서 구조와 행위주체와의 관계를 재정립해 볼 수 있고, 역사적인 시야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이 분야에서 보이는 연구사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보다 정답

26) Ibid.

에 가까운 해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가 제노비스는 이러한 역사가의 논쟁을 보다 한 차원 높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다. 그러므로 그의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의 정확한 이해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구조의 측면과 행위주체에 대한 역사가의 논쟁에서 말이다. 당시의 주인공의 구조와 질서의 강도의 수준에 대해서 역사가들의 논쟁이 되어왔다. 그런데 제노비스는 노예들이 일상적인 수준에서 사소하고 “작은 저항”이 계속됨으로써 주인공의 방어와 준비가 더더욱 철저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인공이 노예들의 저항에 대한 자신만의 방어 진지와 구조를 철저하게 쌓고, 그 구조의 내용을 내밀화하여 겉으로는 구조가 약한 테두리만 보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인공이 의도하고 있는 구조의 가장 내밀화된 기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공은 사소한 것에 대한 저항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결국 노예들의 결정적인 한 방의 저항이 고갈되고 별 의미를 찾을 수 없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²⁷⁾

주인님은 “매일 매일” 저항의 방식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 주인공 즉 노예소유주의 권력을 더더욱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굴절”되게 조정하고 있는 그들만의 일사분란한 노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관계 속에서는 하나의 “구조”와 “체제”로서의(as a system) 노예제도에 감히 도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²⁸⁾

이어서 “구운 돼지고기가 가장 맛있을 경우는 바로 훔쳤을 때이다.”(Roast Pig Is a Wonderful Delicacy, Especially When Stolen)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 “음식을 훔치는 것은 결국 노예들에게 스스로

27) Genovese, *Roll, Jordan, Roll*, pp. 597-598, 608-609.

28) Ibid.

의 '자금심'을 버리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그 과정에서 노예들의 행위 주체로서의 자기결정까지도 사실은 은연중에 구조의 율가미 안에서 작동되도록 한 주인님의 속셈에 있다는 것을 역사가는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²⁹⁾

노예들은 매일 매일 일상에서 주인님께 도전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그들의 불굴의 저항으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제노비스의 일상의 저항의 모습에 거의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저항은 보다 큰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저항을 희석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제노비스의 이야기는 매우 적절한 것이다. 적어도 두 가지 개념 즉 구조와 행위주체 간의 그 노골적인 대립각에서 대안적인 조합의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았는가 말이다.³⁰⁾

길고도 긴 시간의 여행 속에서 사실 이들 노예들의 이야기들은 면화 농장의 고랑과 이랑 사에서의 살아 숨 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 고랑사이에서 이야기는 흘러가고 유통되며, 다시 이상야릇한 방식에서 선택적 기억으로 변모되면서 다시 머릿속으로 쌓여진 것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예시절을 경험했던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이야기들이 특정 시간과 공간이라는 특수한 경험으로 집어넣어서 이해될 수 있도록 이후의 역사가 요구하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기억의 재현을 증언하는 경험자들은 사실 노예제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주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자발적이고 자유의지적인 측면을 충분히 강조하기를 원하

29) Ibid.

30) Ibid; Northup, *Twelve Years a Slave*, pp. 187-188; Isaac Mason, *Life of Isaac Mason as a Slave* (Worcester, MA, 1893), p. 27; Pickard, *The Kidnapped and the Ransomed*, p. 188; A. K. Farrar to H. W. Drake, September 5, 1857, Farrar Papers, Lower Mississippi Valley Collection, Hill Memorial Library, Louisiana State University; Grandy, "Narrative of the Life of Moses Grandy," p. 175; Olmsted, *The Cotton Kingdom*, p. 450.

는 다음 세대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자신의 경험을 조정하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³¹⁾

이와 함께 이 분야의 역사 해석은 구조와 행위주체의 논쟁에서 시시각각 그리고 요상한 방식으로 변화를 해왔다. 역사해석에서의 강조점이 시대마다 변화를 보이는 것은 특정 측면은 강조하고 있는 관점은 다른 측면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역설적으로 그쪽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는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예들의 행위주체와 그들이 가진 자치적인 문화 단위의 강조에 대해서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은 너무 과하게 강조하여 왔다는 말은, 그런 것이 존재하고 역사의 중요한 동인으로 존재하여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한편으로 그런 중요한 요인들을 전체적인 관계망 속에서 다시 보자는 것,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회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한쪽의 강약을 찾아보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중요한 지점에서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 측면에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행위주체”의 그 특징과 그들의 행동을 이 특수한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구조와 연관하여 볼 때 매우 제한적인 연구에서만 집중하여, 오직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에서만

31) John Blassingame, ed., *Slave Testimony: Two Centuries of Letters, Speeches, Interviews, and Autobiographies* (Baton Rouge, LA: Louisiana State University Press, 1977), pp.xliiii-lxii; Donna J. Spindel, “Assessing Memory: Twentieth-Century Slave Narratives Reconsidered,”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27 (1996), pp. 247-261; Mia Bay, *The Whites Images in the Black Mind: African-American Ideas About White People, 1830-192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 113-116.

행위주체를 경우를 지적하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되게 된다.

그런 연구 방법론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구조와 경계라 고밖에 할 수 없는 관계들 속에서 노예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과 운동은 어디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인가? 또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그들 노예들이 어느 정도에서 단결과 공동체 활동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모와 저항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구조도 중요하고 그 속의 행위주체의 운동을 동시에 이해하는 그런 탄력성이 있는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원론이나 이분법적인 접근 태도를 벗어나서 상호작용 그리고 환경, 생태학까지도 아울러서 그 구조를 이해하고, 행동주체들의 역동성까지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정식의 항수로 넣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구조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이 특수한 지역과 일반적이지 않은 생산방식과 양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왜 행위주체의 역동성과 자발성 그리고 그 운동의 한계를 일으킬 수 있는 인문지리학적인 영역과 환경사와 같은 보다 큰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미국 남부 노예제 사회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속에서 역사가들은 언제나 자기 시선과 터널 비전으로 보면서 입맛에 맞는 그림들을 발견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예들 자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협력과 자유의지, 저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

의가 되어 왔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어렵지 않는 부분이다.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른바 “노예공동체”, “도덕경제학” 또는 “도덕생태학”이라고 부르는 최근에 인기 있는 이론을 도입하여 이 사회에서 적절한 보기를 찾아보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이런 주장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논쟁에서 궁극적으로는 흑인 노예들의 자발성과 협력 시스템 그리고 그들의 저항을 더더욱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인님이 만들어 놓은 무쇠우리에 대한 놀라운 흔적들과 장벽들을 찾아보는 노력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예들의 자발성을 언급하기 이전에 결국 이 모든 게임의 규율과 공동체를 만든 선지식은 바로 주인님이 만든 무쇠우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주인님의 놀라운 감시와 통제의 틀은 단지 보이는 것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노예들의 투쟁과 공동체의 행동 양식에서도 주인님의 장치로서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노예제 사회의 구조와 행위주체와의 내밀화된 상호작용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음식이다. 주인님은 음식을 매개로 해서 그들을 통제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들 노예들의 공동체까지도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 글이 이러한 접근 방법에 대한 연구사적인 정리와 대안적 방안의 모색을 시도한 글이라면, 다음에 올 작업에서는 이러한 이론들과 대안들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구조”와 “행위주체”와의 연관성과 상호작용을 입증하는 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필자는 다짐한다.

(2019.11.01. 투고 / 2019.12.09. 심사완료 / 2019.12.09. 게재확정)

[Abstract]

American Slavery Structure and Agency Reconsidered

Yang, Hong-seuk

This critical essay aims at the understanding recently reinterpreted in the slavery system and, through it, historian arguments about which facts such as structure and agency are much more important. Historians in this parts over the decade have shifted from “agency determines structure” to “structure determines agency. I do agree in this interpretation. But the two factors never an independent variable in the slavery system. they could give and take a mutual effect. And so choosing and taking either one of those two, historians never explain the mutuality in this problems. And so I try to reorganize the two elements in slavery and then to understand organic relationship.

□ Keyword

American Slavery, Structure, Agency, Slaver Community, Moral Economy

[참고문헌]

- Archer, Margaret S. *Structure, Agency and the Internal Conversa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Ball, Charles. *Fifty Years in Chains; or, The Life of an American Slave*. 1859; Detroit: Negro University Press, 1969.
- Barker, Chris. *Cultural Studies: Theory and Practice*, London: Sage. 2005.
- Blassingame, John W. *The Slave Community: Plantation Life in the Antebellum South*. 1972; rev.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Brown, John. *Slave Life in Georgia: A Narrative of the Life, Sufferings, and Escape of John Brown, a Fugitive Slave*, ed. F. N. Boney. Savannah: Library of Georgia, 1991.
- Bruner, Peter. *A Slave's Adventures toward Freedom: Not Fiction but the True Story of a Struggle*. Oxford, Ohio, n.d.
- Camp, Stephanie. *Closer to Freedom: Enslaved Women and Everyday Resistance in the Plantation South*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4.
- Elkins, Stanley M. *Slavery: A Problem in American Institutional and Intellectual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 Eltis, David. *The Rise of African Slavery in the America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Genovese, Eugene D. *Roll, Jordan, Roll: The World the Slaves Made*. New York: Vintage, 1976.
- Jackson, Andrew. *Narrative and Writings of Andrew Jackson of*

- Kentucky*, Syracuse: Daily and Western Star Office, 1847
- Johnson, Walter. *Soul by Soul: Life Inside the Antebellum Slave Marke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Johnson, Walter. "On Agency," *Journal of Social History* 37:1, Fall 2003.
- Johnson, Walter. "Agency: A Ghost Story," in Richard Follett, Eric Foner, and Walter Johnson, *Slavery's Ghost: The Problem of Freedom in the Age of Emancip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1.
- Johnson, Walter. *River of Dark Dreams: Slavery and Empire in the Cotton Kingdom*. Cambridge: the Belknap Press, 2013.
- Hadden, Sally, *Slave Patrols: Law and Violence in Virginia and the Carolina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 Kaye, Anthony. *Joining Places: Slave Neighborhoods in the Old South*.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 Martin, Jonathan D. *Divided Mastery: Slave Hiring in the American Sout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 Morgan, Phillip D. and Ira Berlin, eds., *Cultivation and Culture: Labor and the Shaping of Slave Life in the Americas*.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93.
- Morgan, Phillip D. *Slave Counterpoint: Black Culture in Eighteenth-Century Chesapeake and Low Country*.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8.
- Olmsted, Frederick Law. *The Cotton Kingdom*, ed. Arthur M. Schlesinger. New York: Random House, 1984; orig. pub. 1860.
- Penningroth, Dylan C. *The Claims of Kinfolk: African American*

Property and Community in the Nineteenth-Century South.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3.

Pickard, Kate E. R. *The Kidnapped and the Ransomed: Being a Personal Recollection of Peter Still and His Wife "Vina" after Forty Years of Slavery.* Syracuse: Wm. T. Hamilton, 1856.

Rawick, George P. *From Sunup to Sundown: The Making of the Black Community.*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72.

Stampp, Kenneth M. *The Peculiar Institution: Slavery in the Antebellum South.* 1956; New York: Vintage Books, 1989.

Stroyer, Jacob. *Sketches of My Life in the South, Part I.* Salem, MA: Salem Press, 1879.

Thompson, E. P. "The Moral Economy of the English Crowd in the Eighteenth Century," *Past & Present* 50, 1971.

Thompson, E. P. "The Moral Economy Reviewed," in *Customs in Common.* New York: New Press, 1993.

Womack, John. "Doing Labor History: Feelings, Work, Material Power," *Journal of the Historical Society* 5, September 2005.